

이미	Already	최수현
써어		Soohyun
머릴	Deflated	Choi

전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작품이 있다. 바로 피에로 만초니(Piero Manzoni)의 <예술가의 숨>(Artist's Breath)이다. 현재 이 작품은 빨간 풍선의 잔해 상태로 남아 있다. 풍선이 부착된 나무 받침대에서는 작가의 이름과 제목이 새겨진 금속 명판이 있다. 1960년, 만초니는 '내가 풍선을 불 때, 나는 이 오브제에 내 영혼을 불어넣어 불명의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이 작품에 예술가의 '숨'은 없다. 그의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풍선은 유머러스한 역설이 되었다. 자기 신체를 물신화, 상품화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술적 창조의 체념, 예술의 자본화에 대한 조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실패감을 증거한다. 그래서 숨결이 빠져나간 풍선은 비극이자 희극이다. 최수현의 작품은 팔 수 없는 예술가의 숨을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 만초니의 시도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작품의 실체와 본질은 없어졌지만, 부수적인 요소들만 남아서 작품을 이루는 상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사유하는 것이 그의 작품이다.

60년이나 지난 만초니의 작품을 다시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작품을 통해 던진 질문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어쩌면 미술계의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그 질문은 영원히 유행처럼 미술계를 떠돌 것이다. 작품의 생산은 소비(혹은 향유)와 유통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각적 폐기 혹은 휘발을 목표로 했던 작품도 그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예술가들은 고민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 고민은 매우 철학적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현실적이다. 최수현은 그동안 문화적 정체성, 인종, 젠더, 언어 등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작업의 소재로 삼았다. 그는 삶과 예술을 떨어트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의 가치와 미술계의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역시 자신이 예술가로서 경험한 상황, 즉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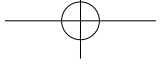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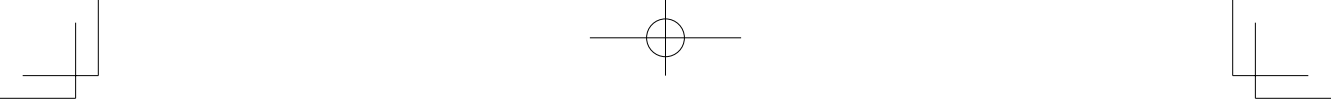
전시명이자 영상 작품의 제목인 <이미 새어버린>(Already Deflated)은 작가가 만초니의 <예술가의 숨>을 생각하면서 시작한 작업이다. 만초니의 작업은 사실 풍선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숨결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의 숨결이 빠진 풍선 잔해들이 '작품'으로 남았다. 아무리 미술이 비물질화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냥 봐두지 않는다. 사진, 영상, 텍스트와 같은 기록이나 오브제와 같은 잔해들에 의해서 그 존재가 증명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술의 상업화를 거부하고 비물질화를 외친 작품들 역시 미술시장으로 흡수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재미있게도 갤러리에서의 전시가 결정됐을 때, 만초니의 작업이 떠올랐다고 한다. 만초니는 풍선 안에 든 숨을 팔려고 했다. 하지만 최수현은 자신의 숨이 빠져나간 풍선을 팔려고 한다.

<이미 새어버린>은 런던의 한 공원에서 풍선에 가스를 넣고 하늘로 띄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다 중간에 작가의 2017년 작품인 <Balls and Balloons> 영상이 등장한다. 만초니의 작품에서 출발했지만, 풍선이 등장했던 본인의 예전 작업이 떠오른 것이다. <Balls and Balloons>은 아테네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작가는 아테네의 풍선을 파는 사람에게 풍선을 몽땅 사서 그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작가가 풍선을 파는 노동을 대신한다. 풍선을 들고 변화가를 배회하는 작가는 스스로 풍선을 파는 노동자인지 예술가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창작 행위라고 불리는 예술가의 노동 행위에 대한 의미 혹은 그 가치를 반문하는 작업이었다. 이 두 작업은 쓸모없는 무용한 행위를 통해 예술가의 노동 활동, 예술 행위의 가치, 예술과 자본의 교환 상황을 ‘풍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풍선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작가는 사람들이 풍선을 사는 것은 ‘환상’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풍선을 파는 노동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에게 풍선은 인간의 욕망과 예술의 환상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대리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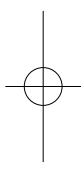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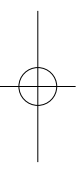
오브제 <바람이 새어나간 뒤>(After Deflation)와 <재구성된 조각들>(Recasted Pieces)은 영상에 등장한 풍선 잔해로 만든 작업이다. 만초니에게 풍선 자체는 작품이 아니었고 최수현의 2017년 영상에 등장한 풍선은 버려졌다면 이번에 풍선은 입체 작업으로 박제됐다. 오브제는 터진 풍선에 레진을 부어 굳혔다. 작가는 풍선에 이미 숨은 빠져나갔지만 가장 영구적인 재료로 오브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작품, 즉 미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의 시도이면서 놀이다. 종이에 텍스트가 각인된 <테이트에서 온 메일>(A Mail from Tate)은 테이트 모던에서 보낸 서신이다. 만초니의 <예술가의 숨>을 실제로 보고 싶었던 작가는 테이트 모던에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그들은 ‘개별 물품 및 작품 전체에 가해지는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관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작가는 관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영상 작업을 기획했다. 계획이 무산됐을 때, 황당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 ‘작품’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수현은 관람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말수가 많은 작업이다. 하지만 답은 없다. 작가가 스스로 질문에 답을 내렸다면 그 질문들은 작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삶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작업의 출발점이다.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버려진 것과 남는 것 그리고 환상(예술)과 현실. 작가는 상반된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양극단 사이의 순환구조 말이다. 사실 작가는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선 예술가의 날 선 창작과 무수히 많은 실패 그리고 무모한 시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또한 비극이자 희극이다.



Artist's Breath (1960), created by the Italian artist Piero Manzoni who led the Arte Povera and Conceptual Art movement, is a thought-provoking artwork that informs the viewing of Soohyun Choi's latest exhibition. It comprises a deflated red balloon and a string attached to a wooden base, complete with a small metal plaque bearing the artist's name and the title of the work. Manzoni said, "When I blow up a balloon, I am breathing my soul into an object that thus becomes eternal." Howev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se balloons have deflated, decomposed into mere scraps, and are far from eternal. The value of the balloons, exhausted of the very breath that once infused them with significance, has transformed into a humorous parad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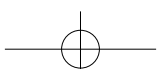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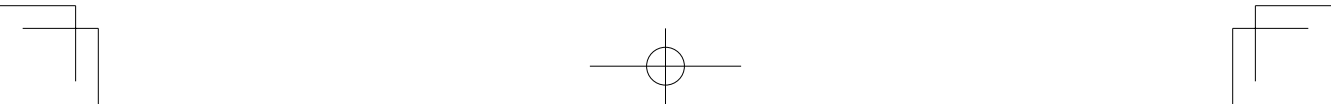
Manzoni's charismatic fetish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his own bodily substances are intrinsically tied to his personal experiences, deeply marked by the tragedy of the Second World War and a profound sense of failure stemming from that historic catastrophe. Consequently, the deflated balloons evoke both drollery and pathos. It is in this context that Soohyun Choi's work draws inspiration from Manzoni's audacious act of selling what cannot be sold: his breath. She revisits this idea and explores how it can be reinterpreted in current contemporary art. Her works delve into states of art that no longer encapsulate the original spirit or form, yet persist as components of art, albeit with an ironic tw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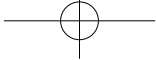


What lingers of Manzoni's breath, as encapsulated in *Fiato d'Artista* (Artist's Breath), more than sixty years after its initial presentation? The answer lies in the fact that the questions raised then remain as pertinent as ever. Perhaps the breath Manzoni instilled into these balloons will haunt art institutions for as long as art endures. Matters of consumption, amusement, and distribution are eternally relevant in the creation of artwork, extending to works inherently volatile or prone to immediate destruction. Artists are compelled to grapple with these philosophical yet undeniably real concerns in their creative endeavors.

Soohyun Choi's artistic vision is deeply rooted in her first-person experiences, touching upon cultural identity, race, gender, and language as themes in her previous work. She perceives art and life as inseparable, where matters of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in the appreciation and institution of art mirror the essence of the very life she has experienced her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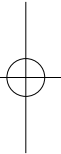
Already Deflated serves as a fitting title for the video installation, drawing inspiration from Manzoni's *Artist's Breath*. As the name suggests, the balloon was merely the vessel for the artist's breath, but in the end, all that remained were the tattered remnants of the balloon. Regardless of how art evolves into dematerialized forms, it continues to resonate with viewers through photographs, videos, textual records, and tangible objects that perpetuate its existence. Even art that disavows commercialization and seeks dematerialization becomes absorbed by the art market. Soohyun Choi acknowledges this reality as she embarks on her creative journey. Manzoni's work was the first thought that crossed her mind when the exhibition was scheduled with the gallery. While Manzoni's balloon works contained "the artist's breath," Soohyun Choi's balloons are sold with that breath having already exhau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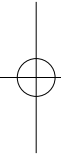


Already Deflated commences with a scene where balloons are inflated with gas and set afloat over a park in London. In the midst of this narrative, Choi's 2017 video work, *Balls and Balloons* makes its appearance. Although Manzoni provided the initial inspiration, Choi's contemplation shifted towards her prior works that also featured balloons. *Balls and Balloons* was filmed in Athens, where she purchased all the balloons from a vendor, relieving him of a day's labor while she embraced the role herself. As Choi wandered through downtown Athens, clutching a bouquet of balloons, she grappled with a profound question: was she a balloon vendor diligently plying her trade, or was she an artist? This query was poised to delve into the essence and value of creative activity, often referred to as an artist's labor.

These futile actions and the symbolism of balloons in her works offer a closer examination of the artist's labor, the value of artistic creation, and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capital. Balloons hold significant meaning in this context, serving as physical representations of human desire and the fantastical promises of art. While Choi saw these balloons as fares to fantasy, the balloon vendors in Athens toiled under the scorching Mediterranean sun, adding depth to the artist's re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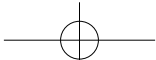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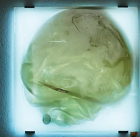
The objects featured in *After Deflation* and *Recasted Pieces* are crafted from the remnants of the balloons showcased in the video. Unlike Manzoni who considered the balloon itself as art, Choi discarded her balloons from 2017. However, in her latest exhibition, she transformed retired balloons into three-dimensional works of art. By solidifying them with poured resin, she ensured that these balloon objects would endure despite the breath that had long departed. Objects of such enduring permanence could be readily traded within the art market. For the artist, this endeavor was both a playful exploration and a formidable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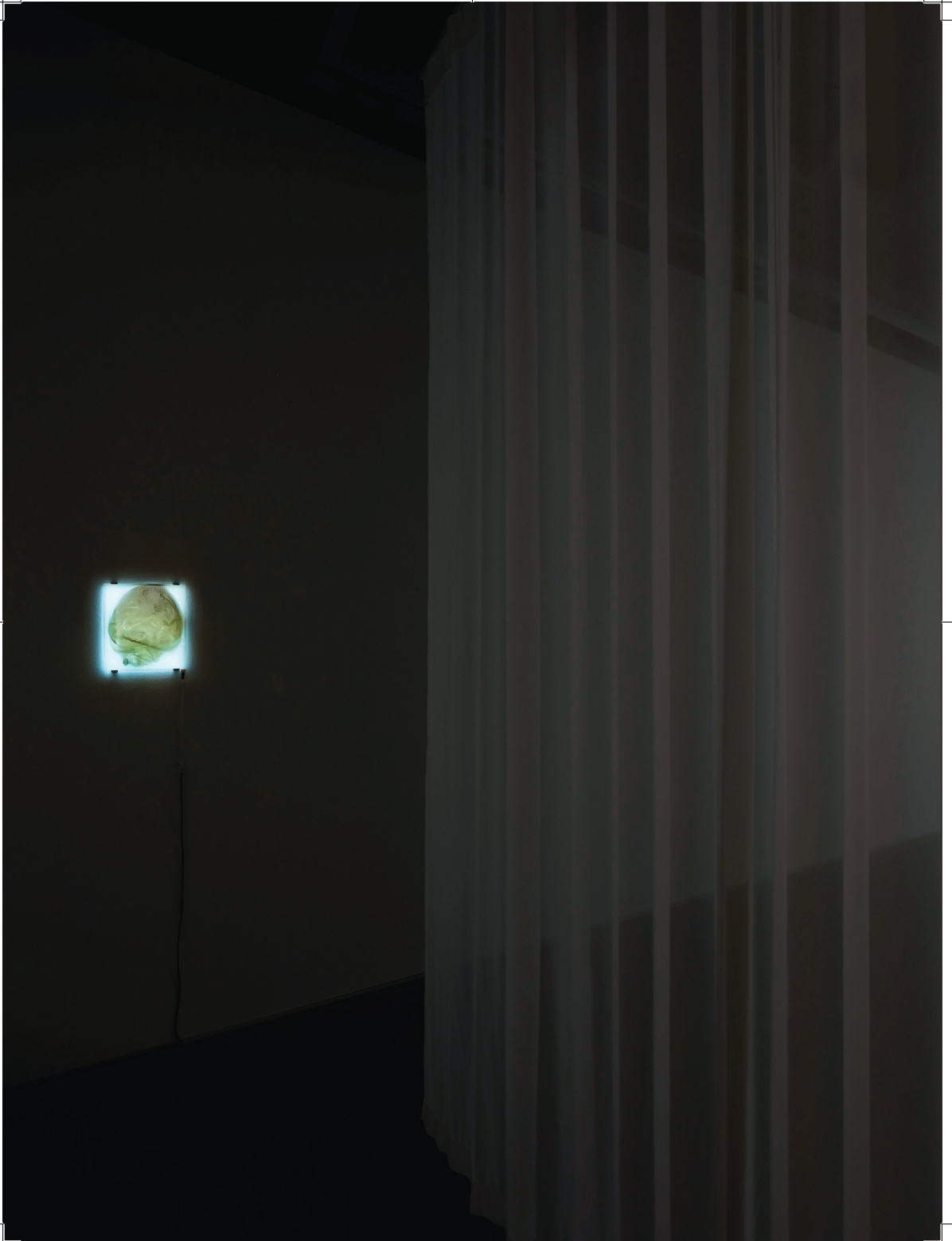
A Mail from Tate comprises a letter from Tate Modern. Choi had previously expressed her interest in viewing *Fiato d'Artista* in person, from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ate Modern. She penned a request for a private viewing, only to have it denied due to the 'potential risk posed to individual items and the work as a whole.' In fact, the artist had initially planned her video work with the expectation that Manzoni's work would be available for viewing. The denial of this request was met with astonishment, though she ultimately came to terms with the fact that the balloon would forever remain out of her reach.

In no few words, Soohyun Choi poses questions to her audience, offering no definitive answers. The absence of such answers is what elevates these questions into the realm of creative work. Her unceasing curiosity and her unsettled perspectives on life are at the deepest foundations of her artistic journey. Her art explores what can and cannot be seen, what matters and what does not, what is lost and what endures, and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the real and the fantastical, all presented in a circular structure that weaves between extremes. According to Choi, it all matters. Her art is a testament to the artist's creative spirit, characterized by countless failures and daring attempts, a blend of both tragedy and come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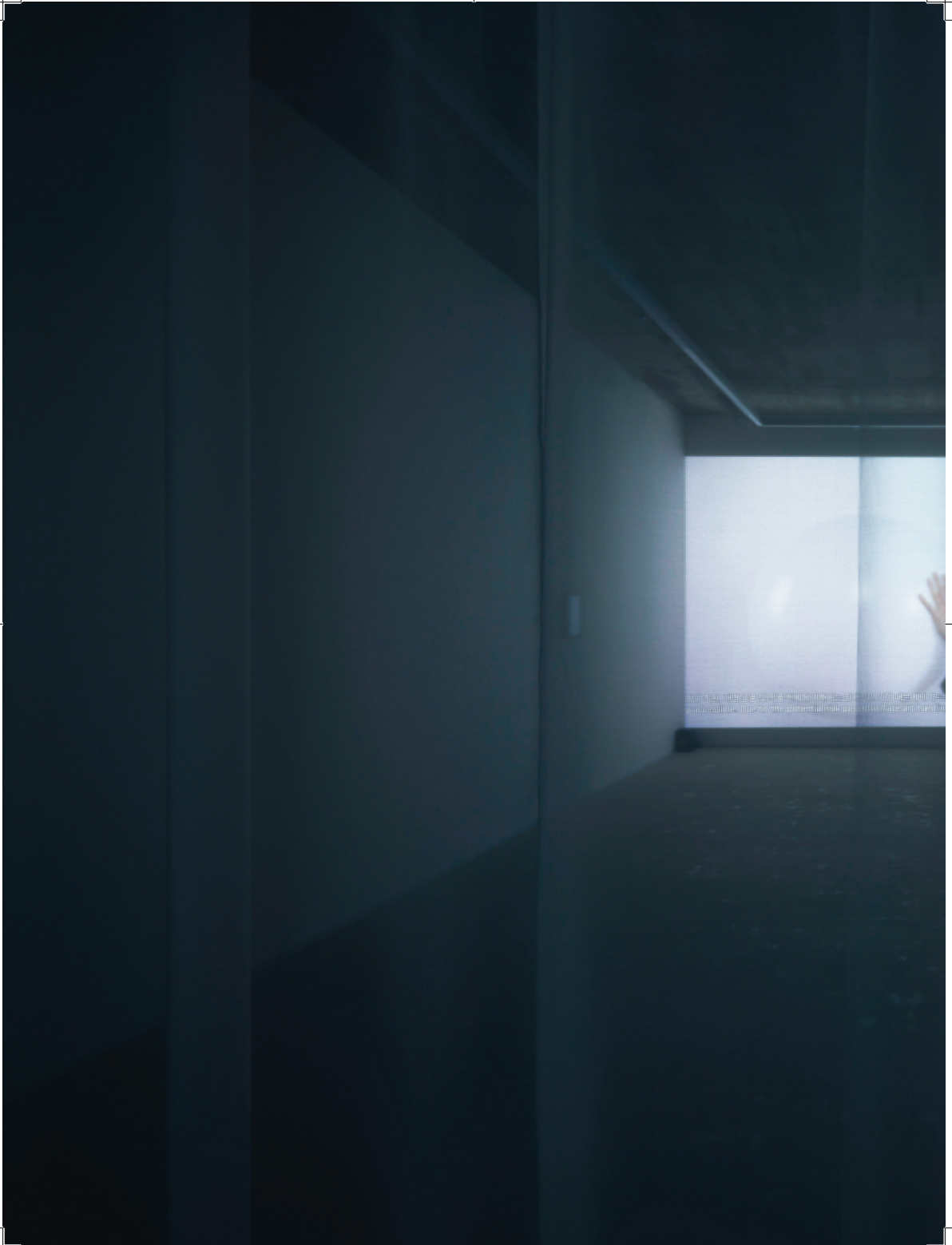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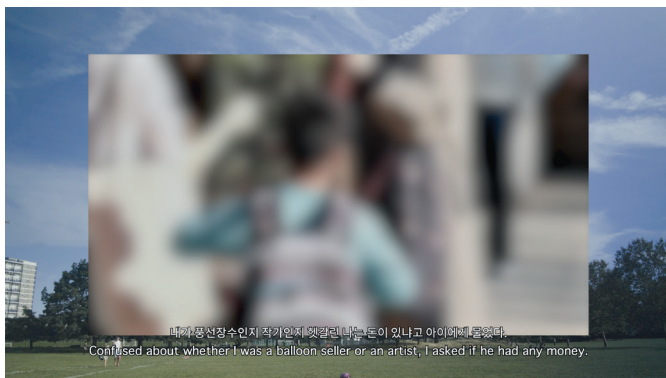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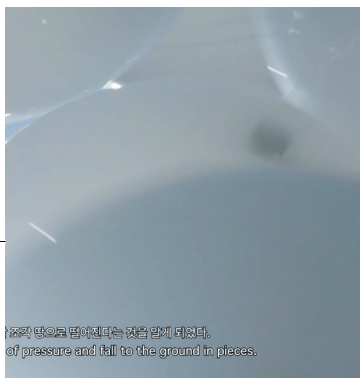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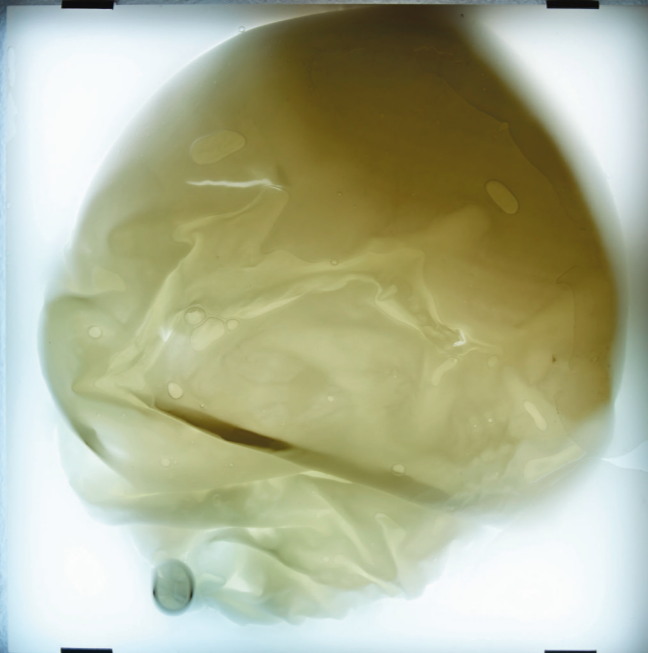








이미 새어버린 Already Deflated, 2K single channel video, 13'05", 2023



바람이 새어나간 뒤 After Deflation, balloon, resin, light, stainless steel frame, 24.5×24.5×2cm, 2023





재구성된 조각들 Recasted pieces, balloon, resin, light, stainless steel frame, 32.5×32.5×2.5cm(each), 2023

Visiting artwork not on display

Collection Care Admin <CollectionCareAdmin@tate.org.uk>
To: Soohyun Choi <shc9440@gmail.com>

12 July 2023 at 16:25

Dear Soohyun,

Thank you for completing and returning a Tate Store viewing application form.

Unfortunately, while Tate endeavours to make it's stored collection accessible to the public, multi-media sculptures pose many constraints and difficulties in making them readily accessible. Due to the potential risk posed to Tate art handling staff, individual items, and the artwork as a whole, Tate will not facilitate viewings for mixed-medium/sculpture works like Piero Manzoni's *Artist's Breath*. Meaning that on this occasion I am unable to offer you a viewing.

I understand that this may be disappointing so please accept my sincerest apologies.

Please do feel free to get in touch with any questions.

Many thanks again for your understanding.

Best wis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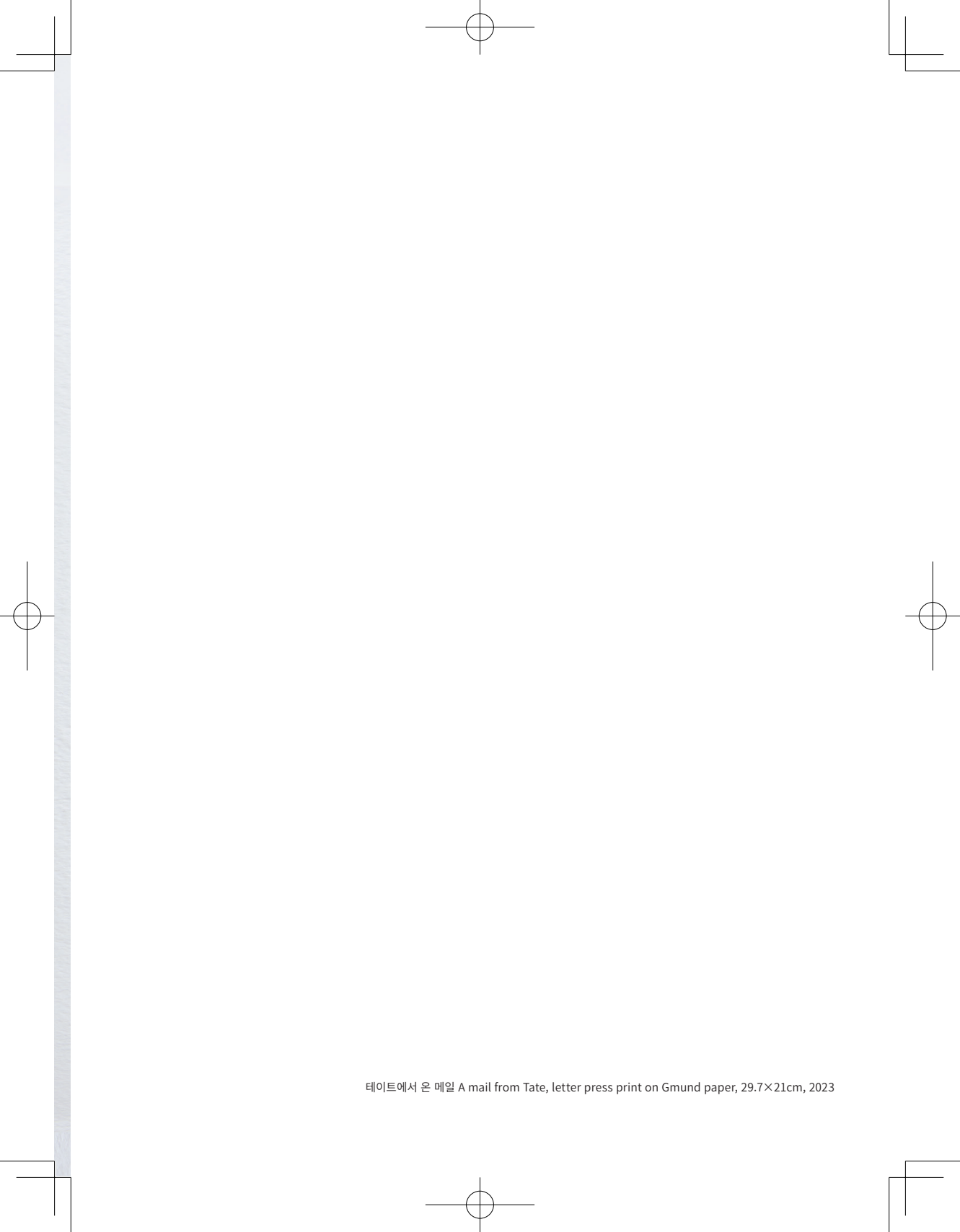
Olivia

Olivia Martin
Collection Care Administrator

Tate Britain
Millbank
London SW1P 4RG
E: collectioncareadmin@tate.org.uk



My pronouns are she, hers, her.



테이트에서 온 메일 A mail from Tate, letter press print on Gmund paper, 29.7×21cm, 2023

학력

- 2014-2016 골드스미스 대학교 순수미술 석사, 런던, 영국
2008-2013 고려대학교 순수미술 학사, 서울, 한국
2010 그리피스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브리즈번, 호주

개인전

- 2024 이미 새어버린, 갤러리2, 서울, 한국
2021 한 장소의 단편들, 소금박물관, 증도, 한국
2018 I call you this you call me that, GlogauAir 아트 스페이스, 베를린, 독일

단체전

- 2022 잉여 가치, 울지로 오브, 서울, 한국
Current Transmissions, ICA 런던, 영국
2021 젊은 예술가의 초상집, 클럽 REC., 서울, 한국
Pushing Up Daisies, Soft Spot, 맨체스터, 영국
2020 다대포 엑스 페스티벌, 스페이스 워버멘쉬, 부산, 한국
2019 Light Up 2019, Graft, 랑케스터, 영국
Push Your Luck, ISLAND, 브뤼셀, 벨기에
Mission to Touch the Sun: Sun Burnt, Paradise Works, 맨체스터, 영국
2018 Hypnagogic Holiday, Safehouse 2, 런던, 영국
2017 Snehta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Songs, Balloons and Broken Tablets',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아테네, 그리스
isthisit? Romanticism: The 2k17 Edition, 온라인
CACOTOPIA, Annka Kultys Gallery, 런던, 영국
2016 SHAM Romance, Chalton Gallery, 런던, 영국
SHAM, Chalton Gallery, 런던, 영국

상영 및 퍼포먼스

- 2023 싸리 레지던스 오픈 하우스, Saari Residence, 핀란드
2022 퍼포먼스 & 스크리닝, Saari Residence x Jokistudio, 터르쿠, 핀란드
Waiting with {Sonic Support} Abbas Zahedi Open Mic, 프리즈 런던, 영국
원도우 프로젝트, Prenzlauer Studio, 베를린, 독일
2021 아티스트 필름 스크리닝: 뉴 뮤빙 이미지, 카라부 프로젝트, 브리스톨, 영국
EXIS2021 18회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서울, 한국
Frictions 6, Summer Programme, Frictions Website, 영국
Summer Camp 2021, Eastside Projects, Online, 영국
2018 Parlour Geometrique, Chiswick House, 런던, 영국

수상 및 레지던시

- 2023 DYCP(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Arts Council England, 영국
2022 싸리 레지던스 Saari Residence, Kone Foundation 지원, 핀란드
칸 세라트 레지던시 Can Serrat Residency,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1 소금 같은 예술 레지던시, 태평염전, 램프랩, 전라남도 문화재단 지원, 증도, 한국
2019 Surnadal Billag, Surnadal, 노르웨이
Eaton Fund, 영국
2017 Snehta Residency, 아테네, 그리스
2015 Joya: atre + ecologia, Los Gazquez, 스페인

인터뷰

- 2022 VAAKA Newspaper, 핀란드
2018 AQNB, Interviewed by Chris Timms, 영국
Issue 15, Floorr Magazine, 영국

Education

- 2014-2016 MFA Fine Arts (Distinction),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2008-2013 BA Fine Arts,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0 Griffith University (Queensland College of Art), Exchange programme, Brisbane, Australia

Solo Exhibitions

- 2024 Already Deflated, GALLERY2, Seoul, Korea
2021 Fragments of a Place, Art like Salt Residency Solo Exhibition, Salt Museum, Jeolla-do, Korea
2018 I call you this you call me that, GlogauAir, Berlin, Germany

Group Exhibitions

- 2022 Surplus Value, Euljiro OF, Seoul, Korea
Current Transmissions, ICA London, UK
2021 Young Artists' Funeral, Club REC., Seoul, Korea
Pushing Up Daisies, Soft Spot, Manchester, UK
2020 Dadebo X Festival, Space Uberrnensch, Busan, Korea
2019 Light Up 2019, Graft, Lancaster, UK
Push Your Luck, ISLAND, Brussels, Belgium
Mission to Touch the Sun: Sun Burnt, Paradise Works, Manchester, UK
2018 Hypnagogic Holiday, Safehouse2, London, UK
2017 Snehta Residency Group Exhibition 'Songs, Balloons and Broken Tablets', Athens, Greece
Athens Digital Art Festival, Athens, Greece
isthisit? Romanticism: The 2k17 Edition, Online
CACOTOPIA, Annka Kultys Gallery, London, UK
2016 SHAM Romance, Chalton Gallery, London, UK
SHAM, Chalton Gallery, London, UK

Screenings & Events

- 2023 Open House at Saari Residence, Saari Residence, Finland
2022 Performance and Screening, Saari Residence x Jokistudio, Turku, Finland
Abbas Zahedi's Open Mic for the 2022 Frieze Artist Award, Frieze London, UK
Window Project, Prenzlauer Studio, Berlin, Germany
2021 Artist Film Screening: New Moving Image, Caraboo Projects, Bristol, UK
EXIS2021 18th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Seoul, Korea
Frictions 6, Summer Programme, Frictions Website, UK
Summer Camp 2021, Eastside Projects, Online, UK
2018 Parlour Geometrique, Chiswick House, London, UK

Residencies & Funding

- 2023 DYCP(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Arts Council England, UK
2022 Saari Residence, supported by Kone Foundation, Mynämäki, Finland
Writing Residency, Can Serrat, Barcelona, Spain
2021 Art Like Salt Residency, Lamplab x Taepyeong Salt Farm, Jeolla-do, Korea
2019 Eaton Fund, UK
Surnadal Billag, Surnadal, Norway
2017 Snehta Residency, Athens, Greece
2015 Joya: atre + ecologia, Los Gazquez, Spain

Interviews

- 2022 VAAKA Newspaper, Finland
2018 AQNB, Interviewed by Chris Timms, UK
Issue 15, Floorr Magazine, UK

이미 *Already*

써어

책 *Deflated* GALLERY2 2024. 1. 11 - 2. 8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편집/ 갤러리2

글/ 전수연

사진/ 김상태

디자인/ 나영선

인쇄/ 인타임

펴낸곳/ 갤러리2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204

T. 82 2 3448 2112

F. 82 2 3448 2772

info@gallery2.co.kr

www.gallery2.co.kr

Editor/ GALLERY2

Text/ SOOYOUN JOUN

Photography/ SANGTAE KIM

Design/ YOUNGSEON NA

Print/ INTIME

Publisher/ GALLERY2

204 Pyeongchanggil Jongnogu Seoul Korea

T. 82 2 3448 2112

F. 82 2 3448 2772

info@gallery2.co.kr

www.gallery2.co.kr

ISBN 979-11-88872-37-4 93650

© 2024 최수현, GALLERY2

© 2024 SOOHYUN CHOI, GALLERY2

우리는 동일한 새벽과 밤을 지낸다
WE HAVE THE SAME DAWN AND NIGHT

GALLERY2 2024. 1. 11 - 2. 8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편집/캘러리2

Editor/ GALLERY2

클/김진숙

Text/ JINJU KIM

사진/김유태

Photography/ SANGTAE KIM

디자인/나영선

Design/ YOUNGSEON NA

인쇄/인타임

Print/ INTIME

펴낸곳/캘러리2

Publisher/ GALLERY2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204

204 Pyeongchangan-gil Jongno-gu Seoul Korea

T. 82 2 3448 2112

T. 82 2 3448 2112

F. 82 2 3448 2772

F. 82 2 3448 2772

info@gallery2.co.kr

info@gallery2.co.kr

www.gallery2.co.kr

www.gallery2.co.kr

ISBN 979-11-88872-37-4 93650

© 2024 서인복, GALLERY2

© 2024 SHINUK SUH, GALLERY2

Education

MFA Sculpture 2017-2019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Distinction)
BA (Hons) Fine Art 2014-2017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 Design, (First Class Honours)
Foundation Diploma 2013-2014 U niversity of the Arts London

Solo Exhibitions

2024 We have the same dawn and night, Gallery2, Seoul, South Korea
2023 Veiled Memories, Daniel Benjamin Gallery, London, UK
2022 Invites: Shinuk Suh, Zabludowicz Collection, London, UK
Playthings, FOUNDRY SEOUL, Seoul, South Korea
2021 Post-Human Syndrome, BEERS London, London, UK
2019 Man(u)fractured, Unit1 Gallery | Workshop, London, UK
Insignificant Tension, Daniel Benjamin Gallery,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Prologue Exhibition, Seongsan Art Hall, Changwon, South Korea
Laughter Comes and Tears, The Contemporary Art Museum of Luxembourg (MUDAM), Luxembourg
Ring Ring Ring, Pal Project, Paris, France
Unfurnished, Bomb Factory Foundation, London, UK
Worm At The Core, Set Woolwich, London, UK
Certeza, Colección SOLO, Madrid, Spain
RSS Gilbert Bayes Awards Show, University of Chester, Chester, UK
Gilbert Bayes Awards 2021 by Royal Society of Sculptors, Cromwell Place, London, UK
Arte Publico, UVNT, Madrid, Spain
Hi, How Are You?, Cerquone Gallery, Madrid, Sapin
Peach Fuzz, The Factory, London, UK
ONE, San Mei Gallery, London, UK
Recreational Grounds : Off Site, Thames-Side Studios Gallery, London, UK
La Totale 2020, Studio Ota and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France
FBA Futures 2020, Mall Galleries, London, UK
Rendered Reality,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UK
Art Biesenthal 2019, Art Biesenthal, Biesenthal, Germany
Salon of Conviviality, White Rooms Foundation, Moscow , Russia
Pareidolia, Space Station, London, UK

Awards / Residencies

2020 Finalist for Gilbert Bayes Award 2021/22, Royal Society of Sculptors, UK
Finalist for Annual Open / Summer Marathon 2020, BEERS London, UK
2019 Finalist for Unit1 Gallery Solo Residency Award, Unit1 Gallery | Workshop, London, UK

Press

2022 Interview, 문화로 보는 사회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되찾아보려!, BE(TITITUDE) (November)
2022 Review, 서산록 PLAYATHINGS, Magazine Monthly Art(월간미술), Issue 449 (June)

2021 Interview, Post-Human Syndrome, Art Verge (March)
2020 Review, Rendered Reality, ArtAsiaPacific, Issue120 (October)
Review, Rendered Reality, a joint presentation of works by Joonhong Min and Shinuk Suh, FAD Magazine (March)
2019 Review, 완벽함의 역설 사회, Magazine Artmine (December)
Review, Best of the Frieze week satellite fairs: Sunday and Moniker, Financial Times (October)
Interview, Dateagle Art (August)
Review, The London MFA Shows: The Search for Authenticity in a Post-Truth World, Elephant Magazine (July)

Work Experience

2023 L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21 Lecture, Perspectives Lectures, Camberwell and Wimbledon College of Arts, London, UK
2020 Talk, 30 Days 30 Conversations, Unit1 Gallery, London, UK

학력

조각 석사 2017-2019 클레이드 예술학교
순수미술 학사 2014-2017 쉐트윅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
패션디자인 2013-2014 런던 예술대학교

개인전

2024 우리는 동일한 새벽과 밤을 지낸다, 갤러리2, 서울, 한국

2023 Veiled Memories, 다니엘 벤자민 갤러리, 런던, 영국

2022 Invites: Shinuk Suh, 자를로르디시 컬렉션, 런던, 영국

2021 Playthings, 파공드리 서울, 서울, 한국

2019 Man(w)fractured, 유닛원 갤러리|워크샵, 런던, 영국

Insigificant Tension, 다니엘 벤자민 갤러리, 런던, 영국

단체전

2023 제7회 창원비엔날레 포클랜드-미러에 대해 묻하기, 창원아트루트 지하공간, 창원, 한국

Laughter Comes and Tears, 폴 웨일부르크 현대 미술관, 북세부르크

Ring Ring Ring, 쿨 프로젝트, 파리, 프랑스

Unfurnished, 볼 팩토리 파운데이션, 런던, 영국

2022 The Worm At The Core, 셋 홀라지, 런던, 영국

2021 RSS Gilbert Bayes Awards Show, चेस्टर 대학교, चेस्टर, 영국

Gilbert Bayes Awards 2021 by 영국 왕립 조각협회, 크롬웰 플레이스, 런던, 영국

2021 Arte Publico, JUVNT, 마드리드, 스페인

Hi, How Are You?, 서클네 갤러리, 마드리드, 스페인

2020 Peach Fuzz, The Factory, 런던, 영국

2020 Recreational Grounds: Off Site, 워즈 사이드 스톱 갤러리, 런던, 영국

La Totale 2020, 스톱디오를타, 갤러리아 갤터누아, 르 롱왕, 프랑스

2020 FBA Futures 2020, 린 갤러리, 런던, 영국

Rendered Reality, 주영 한국 문화원, 런던, 영국

2019 Art Biesenthal 2019, 아트 비젠탈, 비젤, 독일

2019 Salon of Conviviality, 화이트몰 파운데이션, 모스코, 러시아

Paradolia, 스페이스스테이션, 런던, 영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20 Gilbert Bayes Award 2021/22 수상, 영국 왕립 조각협회, 영국

Annual Open / Summer Marathon 2020 수상, 비아스 런던, 영국

2019 Unit1 갤러리|워크샵 개인 레지던시, Unit1 Gallery | Workshop, 런던, 영국

인터뷰/리뷰

2022 인터뷰, 윤장 클은 사회에서 인간적 조영성을 되찾아주기, 비메터블드 (11월)

2021 리뷰, 서산목 PLAYTHINGS, 플간미홀, Issue 449 (6월)

2021 인터뷰, Post-Human Syndrome, 아트 버지 (3월)

2020 리뷰, Rendered Reality, 아트 아시아 퍼시픽, Issue120 (10월)

2020 리뷰, Rendered Reality, 페드 매거진 (3월)

2019 리뷰, 완벽한 익명 사회, 아트마인 (12월)

2019 리뷰, Best of the Frieze week satellite fairs: Sunday and Monday, 파이넬홀 터닝조 (10월)

인터뷰, 데이트에이큰 아트 (8월)

리뷰, The London MFA Shows: The Search for Authenticity in a Post-Truth World, 월레펀트 매거진 (7월)

경력

2023 강의, 상공관대학교,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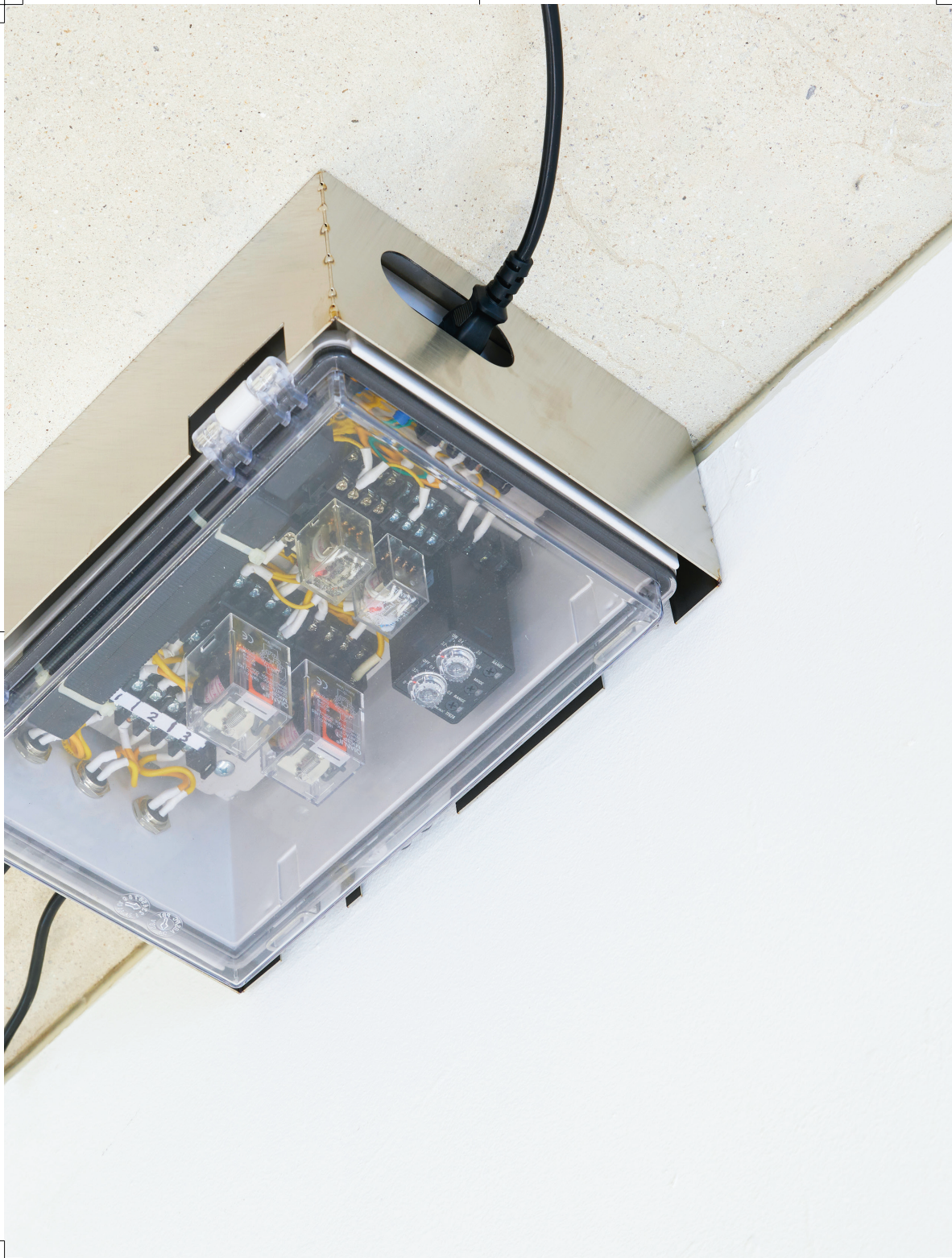
2021 강의, Perspectives Lectures, 캠퍼월/윙클던 예술대학, 런던, 영국

2020 작가와의 대화, 30 Days 30 Conversations, 유닛원 갤러리|워크샵, 런던,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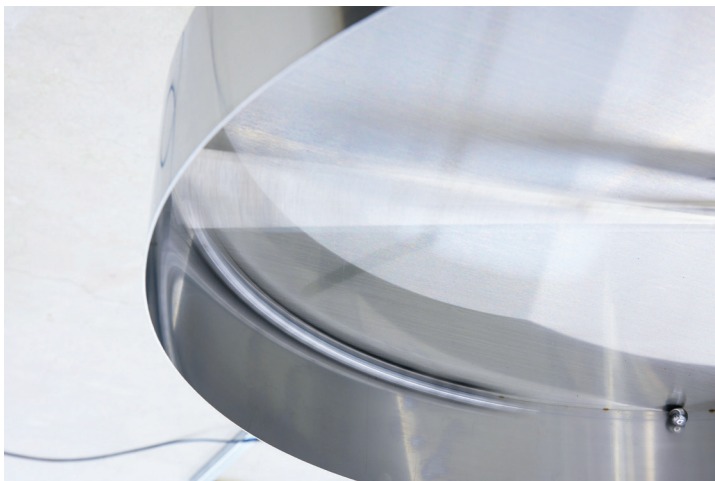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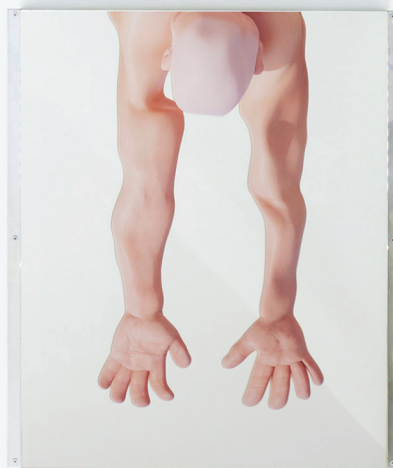








반영적 신체 #2는 실체를 비출 수 있을지 모른다 The reflective body may project reality #2, stainless steel, printed mirror, 215×64×3.1cm, 2024
반영적 신체 #3은 실체를 비출 수 있을지 모른다 The reflective body may project reality #3, stainless steel, printed mirror, 215×64×3.1cm, 2024
반영적 신체 #4는 실체를 비출 수 있을지 모른다 The reflective body may project reality #4, stainless steel, printed mirror, 215×64×3.1cm, 2024













우리는 동일한 새벽과 밤을 지낸다. 알튀세르를 위하여 We have the same dawn and night. For Althusser
stainless steel, motor, motor controller, ball bearing, silicone, leather, bespoke garment, perspex, 3d printed resin, 200×335×620cm, 2024



The artist's interest in psychoanalysis led to his previous works, where he used 3D graphics software tools to visualize brainwaves. Geometry Nodes in Blender is a node system that enables procedural control of data in a mesh or curve object. This allows manipulation of lines and surfaces into other mesh or curve objects, encompassing movement, rotation, and sizing along the X, Y, and Z axes. The humanoid objects fixed to the unibody frame or suspended from wall-mounted mirrors were created using this node system. Although they share a common shape, they exhibit varying forms achieved through subtle alterations in input. The shift from steel to stainless steel is notable as both materials are emblematic of industrialization and factory machinery, but stainless steel, in particular, holds a special place in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thereby localizing the artist's narrative to Korea's industrial journey and societal evolution.

Through the silicon hands and distorted outlines of human body within the exhibition hall, Suh unveils the tragic narrative imposed upon our lives by industrialized society. However, this tragic tale can transform into comedy with the subtlest change in perspective. The rotating mechanisms attached to the unibody frame, indicated by arrows tracing their circular paths, interact with altered humanoid forms. The mirrored wall reflects not only the contraption but also the spectators facing it, inviting us to witness the entirety of the system that envelops us. A fleeting sense of distable humor flickers in the flailing clothing items and soft silicon hands, which endlessly rotate in vain, gathering dust and wearing away over time. Yet, this humor lacks genuine comedic delight, leaving behind a tinge of cynicism. This cynicism, in turn, reinforces the realization that we indeed exist within an extensive mechanism, a complex system of industry an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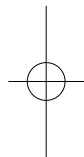
Shinuk Suh's gaze traces the dissolving boundaries that distinguish one individual from another, against the backdrop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contemporary capitalism. His prehensile vision realized through kinetic sculptures, Suh's latest exhibition continues the trajectory of his previous steel-fabricated works, now upgraded with stainless steel as the primary material. Through this evolution, he narrates and explores Korea's industrial and societal landscape, both past and present.

Shinuk Suh's practice casts light over factory *production lines* that dictate human labor, often down to their finest movements. Heralded by the Jacquard loom patent in the early 1800s, around-the-clock spinning and whirling of machines on the factory floor became the image representative of modernity. Factory floors are not without laborers who use their body and limbs to productive ends. However, the industrial machine and its production lines are generally perceived without the person, the florid spinning and swirling of bits and pieces distracting from any attention to human hands.

These discussions are rooted in the concept of interpellation by the French philosopher Louis Pierre Althusser, who argued that societal systems mold individuals into a uniform way of thinking, where individuals imagine themselves as integral components contributing to society. *We Have the Same Dawn and Night* as the title states, and paradoxically this sameness only emphasizes the system over the individuals comprising the collective "we." Shinuk Suh peels back the layers to unveil the contrasting scenes between conspicuous factory mechanisms and the human mechanisms that adapt and conform to them.

Inside the exhibition hall, an elaborate contraption of unibody frame with a control box on each of its two peripheries. Five circular-motion motors are affixed to the frame, each responsible for moving a pair of objects. Three of these motors are linked to circular pan-plates, which rotate rods clockwise, mimicking a circular sifting motion on the pan. On the floor below lies an acrylic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ody. The three humanoid objects, each distinct in shape and curvature, symbolically respond to these movements as they hold pans, collapse, and fold. On one side of the frame composed of rounded plates, rods attached to the frame rotate overhead. On the opposite side, intersecting frames house a rotating motor at the center axis. This motor moves a silicon-cast hand through all four planes of the frame, gently grazing the four humanoid objects suspended from the frame's top. These humanoid figures are crafted from textiles and textures familiar to us: a half-zip hoodie, jeans, textured leather reminiscent of human skin, and finely shaped acrylics. They evoke contemplation on the multifaceted nature of humanity in reality.

Suh's presentations in this exhibition were created using Blender, a free and open-source 3D computer graphics software tool. He specifically employed the Geometry Node function of the software for new experiments involving nude shapes and stainless steel materials.

[illegible]

이러한 면에서 볼 때, 3D 모델링의 발전은 단순히 3D 그래픽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특히,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3D 모델링의 발전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특히,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3D 모델링의 발전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특히,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3D 모델링의 발전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특히,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수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디자인의 이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D 모델링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SHINUK SUH
신욱수

WE HAVE THE SAME DAWN AND NIGHT
아침이 내일에도 찾아와 밤이 온다